

후도 동굴과 나미키리 신사

후도 동굴은 해변에 형성된 동굴로 우도 신궁의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텐이 있는 장소와 닮아 있지만, 규모가 혼텐의 동굴보다는 작습니다. 이 동굴은 수 세기에 걸쳐 승배의 장소로 여겨지며 본래 문명에서 벗어나 혹독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정신 수양에 힘쓰고자 했던 수도승들을 위한 곳이었지만, 훗날 지역 어부들이 기도를 올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미키리 신사는 신도(神道)와 불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1868 년 이전의 일본에서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시설이며, 지금은 바다의 신들을 모시는 신사이자 불교의 상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사 옆 석조 대피소 아래에는 불교의 오대 명왕 중 하나인 부동명왕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충실한 신자를 수호하며 격렬한 애정으로 신자를 인도한다고 알려진 수호신입니다. 석상에는 선원의 수호신인 ‘나미키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모습인 나미키리 부동명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후도 동굴까지는 우도 신궁에서 산 중턱의 오솔길을 경유하면 도보로 30 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